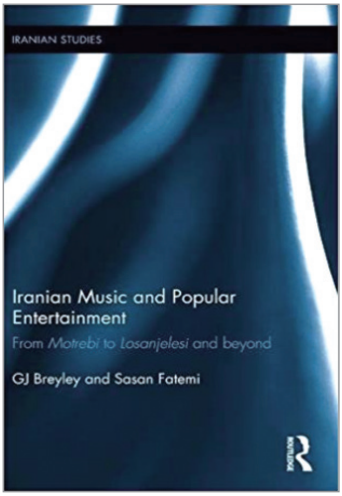

제목	Iranian Music and Popular Entertainment: From Motrebi to Losanjelesi and Beyond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Routledge
발행일	2015. 11. 24.
저자	GJ Breyley, Sasan Fatemi
출판국가	미국
페이지수	230
ISBN 또는 ISSN	978-0415575126

내용 요약

’motreb’이라는 단어는 아랍어 ‘taraba’, 즉 ‘행복하게 하다’라는 동사에서 온 어휘이다. 본래 이란에서 모든 음악가를 지칭했던 용어였던 motrebi는 저속한 연예인과 점차 연결되게 되었다.

저자들은 이란 음악과 대중 엔터테인먼트에서 그간 역사적으로 간과되어 왔던 motrebi의 활동과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 등을 조명하였다. 또한 motrebi가 점차 사라지게 됨에 따라서 그 이후에 발전된 이란의 대중 음악의 형태로 알려진 losanjelesi와 이란에서 이 형태의 음악과 관련된 공연들, 이에 더불어 디아스포라 대중문화의 중심지인 로스엔젤레스에서 이란의 대중 음악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탐구한다. 또한 이 책에서는 motrebi의 쇠퇴와 현대성의 부상 사이의 평행론을 보여주고 있다. 20세기에 테헤란의 motrebi 음악의 운명은 현대 시장 경제에서 유래된 사회 및 도시 양극화에 의해 형성되었고, losanjelesi는 유사하게 초국적 관계, 혁명, 전쟁, 그리고 이주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